

## 2020 년 1 월 12 일 “복음의 일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창 2:15; 엡 2:10)

### <도입>

복음의 일꾼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말은 사역 속에서 그 사랑의 꽃피움으로 보상받으며 주님의 주님 다우심을 목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면 복음의 일꾼들은 주님의 형상(창 1:28 복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을 회복합니다.

### [1] 노동(일)의 의미

노동은 주님께서 이미 타락 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 2:15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정착과 안식을 주심),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일하게) 하셨다’

경작하다(가꾸다) -> 아바드(히),  
지키다 -> 샬바르(히).

따라서 아담의 삶의 본질은 정착한 땅을 누리며(피조계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신 일을 창조주의 뜻에 따라 가꾸고 열매 맺게 하고, 또한 지키고 확장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창조주가 누리신 피조계에 대한 기쁨과 충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경작한다는 아바드의 단어 사용은 ‘예배하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긴다’ 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일상의 일(아담이 에덴을 돌보는 일과 같이)과 예배하고 성막 제사를 섬기는 일의 본질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Paul Stevens 교수는 일터신학에서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님을 설파하고 있는데, 아바드의 용례를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너무 신성시 하든지, 너무 세속화된(기계적, 의무적인) 자세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양 태도는 삶의 분리를 일으켜서 균형을 깎으로써 삶의 성장(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일 속에 심어 주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이 심어 두신 가치, 아름다움, 선함, 조화, 생명의 힘을 발견할 때 성숙의 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 [2]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

바울은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엡 2:10, 딤후 2:14; 3:8 참조). 선한 일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삶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모든 종류의 아바드와 샬바르(경작하고 지키는)의 일상과 교회의 일을 통해 주님이 뜻을 찾는 것이 선한 일의 본질입니다.

어떤 반대나 비판 때문에 힘들어질 때에 일꾼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의 격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의 비판을 의식한 일의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역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한 과정도, 완벽한 결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기대 속에 있는 완벽의 수준이란 원래부터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늘 불만족, 부족감, 초라함, 잘못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잘 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거나 더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일을 관망하는 사람에게도 완벽주의가 있으면 일꾼들에 대한 판단과 희망사항들이 도를 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자신의 내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완벽주의는 생명의 힘을 잠식하는 대표적 죄성의 성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줄여서 말한다면, 이상적이고 최상의 결과를 이뤄야 한다는 기대로 인해 더 잘 해야 한다는 강박적 의식과 성향입니다. 완벽주의로 말미암아 잃는 것은 현재입니다. 항상 내게 투사된 현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과 미완성만 보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낮은 삶입니다.

이 어려운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즐거워하게 되고, 사람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내 삶 속에 주신 모든 일과 관계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교회의 직분자들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아바드와 샤마르의 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삶에서 완벽주의의 무게를 떨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복음의 새 일꾼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삶 속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 일(경작하고 지킴 창 2:15)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의미를 찾았다면 말씀해 봅시다.
2. 현실적으로 삶과 사역에서 발견하는 완벽주의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완벽주의는 왜 해가 됩니까?